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마 14:22-33)

오늘 본문 역시 지난 2 주 동안 살펴 본 본문 처럼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 가셨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3-6시 사이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 예수께서 물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다신 한 번 예수님은 자신을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 본 자들이 한결같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는데 끝은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속으로 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 하소서' 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갔습니까?

첫째 자신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충동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베드로 자신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엡4:26-27;고전15:31;고후12:12)

두 번째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하실 때 처음에는 파도에 발을 내밀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생기고 무서움이 베드로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의심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움에 사로 잡혀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항정을 만들어 그 속에 빠진 격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생기도록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믿음에서 떠나 물속에 빠져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의심하도록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험과 울무와 정욕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